

# 나는 행복할꺼야!

##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얻게된다면...

“행복하여라, 외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9)



### 목표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갖는 것, 일상 생활 안에서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정의롭지 않은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자.



### 어땠나요?

환대, 각자가 살았던 경험들과 어려움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 그리고 지난 마지막 모임 때 있었던 목표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땠나요?



## 모임을 여는 활동

### 너는 무엇을 선택하니?

**목표:** 정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식별할 줄 알도록 한다.

**전개(방법):** 보조자는 땅에 선을 그어 서로 떨어진 두 개의 구역을 만듭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한 줄로 길게 섭니다. 보조자는 두가지 상황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함을 청소년들에게 설명합니다. 청소년들은 선택한 상황에 따라 두 구역 중 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경청과 식별, 나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들은 일상에서 정의를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화를 여는 구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몇 개의 예가 있습니다:

- 이번 주말에 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있을거예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거기 갈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친구도 가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고 부모님은 여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우연히 소파 위에 놓여진 누군가가 잊어버리고 간 지폐를 발견해요. 이 파티에 가기 위해 정확히 들어맞는 액수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요?  
A. 돈을 들고 콘서트에 간다?  
B. 돈을 갖지 않고 집에 남아 있을 것이다.
- 최근에 나는 자주 혼자 있어요. 그래서 몇 몇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아주 멋져 보이는 친구 한 명이 비밀이라며 제게 말하기를 알콜 농도가 아주 강한 술 한 병을 사고 친구들과 함께 마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제안했어요. “ 만일 네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 술을 내일까지 너의 집에 숨겨 놔줄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 보여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



게 할 건가요?

- A) 제안을 받아들인다.
- B)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너가 속해 있는 배구팀 모두가 마리아를 놀려요. 언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항상 이상하게 행동하며 배구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는 패자로 간주되어요. 마리아의 생일날이었어요. 모든 팀 전체가 마리아의 파티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너에게 다가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물어봐요. "내 생일파티에 올거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 A. 초대를 받아들인다.
- B.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버스 정액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걸어서 가기 위해 일찍 떠났어요.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배낭은 무거웠어요. 친구가 인사하면서 차비를 내지 않은 채 버스를 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표 감시원은 보통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A) 버스에 오른다. B) 걸어서 간다.

- 우리 반 친구들은 학교 주변 매점에서 무언가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요. 몇몇 친구들은 내게도 손이 빠르고 훔칠 배짱이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 A) 비웃음을 당할 것을 무릎쓰고 그것을 거절한다.
- B)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가치가 없는 작은 것을 훔친다

매 질문 후에 각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왜 그 구역으로 갔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 우린 이렇게 지내요

복음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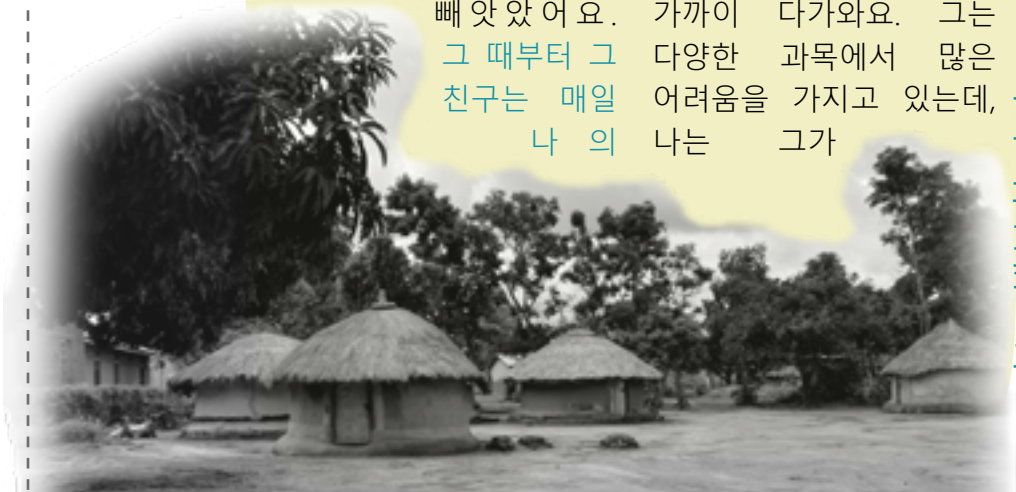
내가 모든 식구들과 함께 Kikwit(콩고 민주 공화국의 도시)으로 이사했을 때 학생 수가 많아 앓을 자리가 부족한 한 학교에 등록했어요. 각 교실에는 8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고, 더 (나이가 있는) 큰 학생들이 마치 그들의 권리처럼 항상 자리를 차지했어요. 매일 (더 나이가 있는) **가장 큰 친구가 나를 밀치면서 의자를 떨어뜨리고 땅에 던져 버렸어요.** 게다가 내가 집에서 가져온 빵도 **빼앗았어요.**

**그 때부터 그 친구는 매일 나의**

**간식을 훔쳤어요.**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그는 원수가 된 것이예요.

**부모님과 의 경험을 나누고 난 후, 나는 그 친구 안에 계신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일 그 친구가 빵을 매일 훔쳤다면 그것은 그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아직 나의 빵을 훔치기 전에, 그에게 빵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천천히 그는 나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나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그는 다양한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가



나는 행복할꺼야!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영기를 얻게 된다면...



## 우린 이렇게 지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집, 가정안에서 사랑을 사는 경험은 제가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보통 남자들은 집안일을 돕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게 작은 집안일들은 사랑하기 위한 기회예요. 설거지를 하고, 옥수수를 갈기 위해 방앗간에 가거나, 옷을 빨기 위해 강가에 가는 것 등...

어느 날 한 친구가 타피오카 밀가루 쟁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를 보고는 "왜 너는 어머니와 네 자매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니?" 하고 물었어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데에는 남자들 여자이든 중요하지 않아".

A.K.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나는 17세 이고, 고등학교 4학년에 다녀요. 춤추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학교 댄스팀에 속해 있어요. 작년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 춤추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춤은 나에게 아주 큰 열정기에 계속 그것을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부모님께 약속 드렸어요. 만일 좋은 성적이 나오면 다음 해에도 춤을 출 것이라고요.

어느 날, 시험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만 컨닝 하는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당장 나는 아주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에 선생님께 발각되었고 나의 영혼 상태는 아주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해졌어요. 나의 사과를 부모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느꼈고, 부모님께서 이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더 나아지는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



상 용서를 청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다음 번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성령의 인도를 청하고 "No"라고 대답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부모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들의 사랑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실수를 허락하세요.

A. 필리핀

나는 행복할꺼야!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영기를 얻게 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 깊이 있게

? 우리가 시대사조를 거슬러 갈 때, 가끔 다른 이들이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따돌리고 거절하는 일도 생기는데,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의구심이 들며 뭔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옳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옳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실에 속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 안에 살아야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가져서는 안돼요. 우리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 진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해요. 그들은 우리 보다 더 좋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의심이나 유혹이 들 때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돌아오곤 하였어요. 그 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강해진 것을 느끼고 힘을 얻었어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혁신으로 세상에 맞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끼아라 루빅,  
1997.05.10. 마리노 -수퍼 3젠대회  
3젠들에게 1996-2002년 치타 누오바 14-15쪽



## 두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키아라 루빅  
로까 디 빠빠, 1975년 6월 20일  
3젠 대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의 안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원수에게 존경 받을 수 없지요. 그들은 그를 업신 여기고 맞서 싸워요. 왜냐하

면 하느님께 속한 그의 행동은 시대 사조를 거슬러 가고 이것은 원수들의 양심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젠들은 자신을 놀리는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나쁜 얘기에 참여하지 않으며,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젠도, 그리스도인들



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모어를 예로 들면 그는 영국 왕의 새로운 결혼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왕은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토마스 모어는 형벌을 받았어요.

모든 이들에 앞서 먼저 박해를 받고 재판장에 끌려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말

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뒤집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인지, 또 세상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득 담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 5,11-12)>



가끔 우리 교실에서 저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나는 견디고, 또 견디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견디고, 또 견디세요.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에요. 3젠들은 어디에나 있지요. 그 반에서 너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에 육체적으로는 혼자이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간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젠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

끼아라 루빅,  
로까 디 빠빠1977년 11월 29일 3젠  
대표자 대회  
3젠들에게. 1975-1980. 차타  
누오바 68-69쪽




일치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옳은 생각을 지니세요. 몇몇 친구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본다면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돕도록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혁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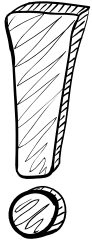
일치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옳은 생각을 지니세요. 몇몇 친구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본다면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돕도록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혁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무언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예수님이예요. 여러분

이 혼자라고 느껴지면 예수님께서도 혼자 셧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당시, 땅은 더 이상 그분을 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늘은 닫힌 듯했지요. 예수님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 조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괜찮아. 예수님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나도 함께 외로움을 느끼길 원해.” 라고 말하세요. 오히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슬러 혼자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 기뻐”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일단 우리의 수는 많고, 또한 외로움은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대상조를 거슬러가는 영기를 얻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거야!



## 시도해볼거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 정의, 정직, 진실한 태도는 가끔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학교, 집, 친구들과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예수님께서도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친구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 시대 사조를 거슬러 사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 어디까지 왔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메모하여 봅시다. 다음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대사조를 거슬러 살 수 있었나요?

오늘 비추어 본 내용과 이루어 낸 기쁨들, 더 나아지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등을 일기장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모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기장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몇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 보조자 공간



### 모임 후 평가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의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제에 대해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